

2017학년도 세종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답안 예시(인문계열 B형)

1. 제시문 (가)~(라)를 각각 요약하고, 인간의 경제 행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두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관점을 기술하시오. (200점, 400~5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0점 처리됨)

제시문 (가)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거래가 재화를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모두의 행복과 사회적 효용을 증진시킨다고 본다. (나)는 소유권이 불명확한 공유 자원을 이기적인 개인들이 경쟁적으로 소비하는 현상에 대해 말한다. (다)는 자원 분배 상황에서 선에는 선으로 대응하고 악에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상대를 응징하는 호혜적 인간에 대해 기술한다. (라)는 관광 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상생과 공존을 추구하는 공정 여행을 주장한다.

(가)와 (나)는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 보고, 경제 행위에서도 합리적 사고를 통해 최대의 이익과 효용을 추구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다)와 (라)는 인간을 호혜적 존재로 보고, 경제 행위에서도 전체가 공생하는 길을 모색하여 상호 협조하고 공정성을 추구하는 호모 리시프로칸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412자)

2. 위에서 분류한 두 관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관점의 제시문을 각자 논거로 활용하여 다른 관점의 제시문을 모두 비판하시오. (400점, 1,100~1,2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0점 처리됨)

I. (가)(나) 선택 - (다)(라) 비판

인간은 이기적 본성을 지닌 호모 에코노미쿠스로서 실리적 행위를 추구하며, 이를 통해 재화를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모두의 행복과 사회적 효용을 증진시킨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손해를 감수하고 전체의 공생을 모색하는 호혜적 존재라고 주장하는 (다)와 자유로운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되는 공정 여행을 옹호하는 (라)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는 최후통첩 실험을 통해 인간이 호혜적 존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실험은 (나)의 경우와 달리 인간의 이기적 본성이 자연스럽게 표출되지 못하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호혜성을 입증할 수 없다. 최후통첩 실험은 '공유지의 비극'처럼 소유권이 불명확한 자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어느 한 사람이 해당 자원을 선점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제안하고 쌍방이 합의하지 못하면 해당 자원이 몰수된다는 조건이 추가되어 있다. 이 추가 조건은 피험자가 불공정한 배분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 사고를 통한 실리적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든다. 하지만 인간은 이기적 존재이므로, 만약 그러한 조건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이해타산적인 결정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경제 행위에서도 공생을 모색한다고 주장하는 (다)는 설득력이 없다.

(라)는 공정 여행이 상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여행이라고 주장하지만, (가)의 관점에서 보면 공정 여행은 경제 행위를 통한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키기 어렵다. 시장에서는 서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래하는 것이 허용되고 가장 높은 가치를 매기는 사람에게 재화가 할당되므로,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이득을 보고 행복해진다. 이같은 자유시장 거

래를 통해 재화의 사회적 효용이 증가한다. 그런데 (라)의 공정 여행은 자유시장 거래로 볼 수 없다. 공정 여행은 여행자가 일정한 경비를 지불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어렵게 하므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공정 여행은 자유주의 시장원리에 어긋나고, 재화의 효율적 분배를 통한 사회적 효용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이와 달리 기존의 여행 상품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자유시장 원리에 부합하여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킨다.

이와 같이 (다)의 최후통첩 실험은 인간이 호혜적 존재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고, (라)의 공정 여행은 인간의 경제 행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인간은 합리적 사고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이기적 존재이며 모든 거래는 상호이익이 전제되어야 한다. (1,194자)

II. (다)(라) 선택 - (가)(나) 비판

인간은 경제 활동을 통해 재화를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키지만, 오로지 자신의 이득만을 고려하고 타인의 이해나 사회 전체의 이득을 도외시한다면 자원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모두의 행복이라는 가치를 실현시킬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경제 행위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공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는 대신 줄 세우기나 암표 거래 행위가 시장을 통해 재화를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킨다고 하지만, 이러한 시장 거래는 (라)에서 말하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어렵다. 돈이 있는 사람은 줄을 서지 않고도 편안하게 연극을 관람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남 대신 줄을 설 수는 있어도 연극을 관람할 수는 없다. 또한 암표는 입장권의 가격을 상승시켜 가난한 이들이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가)는 인간의 삶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았으나, 사회관계, 문화, 환경, 인간 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신 줄 세우기나 암표 거래는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한다면, (라)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서로를 성장시키는 상생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나)는 소유권이 불명확한 공유 자원의 경우에 자기 몫을 더 많이 챙기려는 사람들의 이기적 성향 때문에 훨씬 빨리 고갈되는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인간은 이기적 성향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다)에서 보여주듯이 타인이 지나친 이득을 챙기지 못하게 경계하거나 응징하는 호혜적 성향을 발휘하기도 한다. 무법적 경쟁 상황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간은 상호 견제나 일정한 규칙의 제정을 통해 공정성을 도모한다. 땅수욕을 함께 먹는 경우도 일정한 규칙을 통해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에서 밝힌 인간의 호혜적 성향은 현실에서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상황을 쉽게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와 같이 (가)의 시장 거래를 통한 재화의 효율적 배분은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며, (나)의 공유지의 비극은 인간의 호혜적 성향 때문에 실제로는 발생하기 힘들다. 모두의 행복 증진과 사회적 효용의 증가를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필요하며, 개인의 경제적 이득에만 관심을 두지 않고 서로 협력하고 공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1,154자)